

Vol.1

Issue.13

2020.12.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인도협력센터
Indo-Korea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KIST 한-인도 협력센터 News Letter

Indo- Korea
Science and
Tecnology
Center



한-인도협력센터 주주총회



센터 소식



인도과학기술 소식



인도 코로나 감염 현황

Contents

· 인사말

· 센터 소식

1. 정기 보안교육 실시
2. 인도고등교육기관 조사연구
3. IKST-CU PRISM 콘테스트 최종평가 및 시상식
4. 2020년 연구원 연례성과 평가
5. 센터 내 내부분쟁위원회 구성

· 인도과학기술 소식

1. C-DAC, 'PARAM Siddhi - AI' - 인도에서 가장 빠른 HPC-AI 슈퍼컴퓨터 될 것
2. 모디 총리, AI 글로벌 정상회의의 개막- "RAISE 2020"
3. Airtel의 aatmanirbhar, 연구 개발 및 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5G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4. 5G 솔루션 테스트에 성공한 Reliance Jio와 Qualcomm, 1Gbps 이상의 속도 달성
5. 케랄라주의 관광지에서 선보인 인도 최초의 태양열 소형 열차
6. 인도 군부, 보안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SAI' 개발

· 인도이야기

- 인도 주요 축제 맛보기(디왈리)

· 그외 소식

- 인도 코로나 감염 현황

인사말

센터 소식

1. 정기 보안교육 실시
2. 인도고등교육기관 조사연구
3. IKST-CU PRISM 콘테스트 최종평가 및 시상식
4. 2020년 연구원 연례성과 평가
5. 센터 내 내부분쟁위원회 구성

인도 과학기술소식

1. C-DAC, 'PARAM Siddhi - AI' - 인도에서 가장 빠른 HPC-AI 슈퍼컴퓨터 될 것
2. 모디 총리, AI 글로벌 정상회의 개막- "RAISE 2020"
3. Airtel의 aatmanirbhar, 연구개발 및 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5G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4. 5G 솔루션 테스트에 성공한 Reliance Jio와 Qualcomm, 1Gbps 이상의 속도 달성
5. 케랄라주의 관광지에서 선보인 인도 최초의 태양열 소형 열차
6. 인도 군부, 보안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SAI' 개발

'2020 인도이야기

- 인도 주요 축제 맛보기(디왈리)

그 외 소식 : 인도 코로나19현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인도협력센터 이승철입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는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센터도 안전 및 건강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역량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 보다 팬데믹이 지나간 후 즉각 사업을 진행하도록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팬데믹을 잠깐 정리하면 9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10월의 두세라 축제, 11월의 디왈리 축제가 있어 감소세가 지속될 지 아니면 다시 증가세를 보일지는 조금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본원, 인도연구진과의 대면회의가 제한되어 네트워크 구축과 심도있는 토의보다 진행 중인 연구를 내실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INEMAS의 완성도를 높여 21년 계획된 튜토리얼이 보다 더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현재 작성 중인 논문도 조금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 센터에서는 윤석진 원장님을 모시고 센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Christ University와의 PRISM 콘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한 해 한 해 PRISM 콘테스트 참석자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본원과의 공동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진행하였고 2020년 연구원 연구성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권고에 따라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21년부터 운영하여 인도법을 준수하는 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인도 연구개발 뉴스는 IT/통신분야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되는 통신망과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최신 연구/투자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이야기에는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2021년에는 팬데믹이 어느정도 지나가고 조금씩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인도협력센터장

이 승 철



센터소식

1. 정기 보안교육 실시
 2. 인도고등교육기관 조사연구
 3. IKST-CU PRISM 콘테스트 최종 평가 및 시상식
 4. 2020년 연구원 연례성과 평가
 5. 센터 내 내부분쟁위원회 구성
-

1. 정기 보안교육 실시

KIST 한·인도협력센터는 지난 10월 06일에 센터 내 정기 보안교육을 개최했다. 한·인도협력센터는 센터장 지휘하에 본원 KIST에서 내려온 지침과 보안 규정을 토대로 모든 직원들이 보안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를 피해 스카이프를 통한 화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센터장 외 11명, 총 12명이 한 자리에 모여 보안관련 동영상 시청하고 학습된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 보안교육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2. 인도고등교육기관 조사연구 과제

KIST 한·인도협력센터는 IIMB(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맹현철 교수와 협력하여 1차 과제(인도고등교육조사연구,2020)를 종결한바 있다. 하지만 1년간의 과제로 인도 고등교육기관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과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2차 연구 과제에서는 NIRF, AISHE, and IIST와 같은 권위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자랑하는 대학 시스템(IIT, IIM 중심)과 조직화 된 국가단체(국공립 및 특수목적 대학원)에 대해서 더욱 더 심도 깊게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본 조사사업을 통해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도와의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연구기관이 공동연구자를 찾을 때 활용할 계획이다.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 완성된 보고서는 오프라인 서적으로도 출간할 예정이다.

3. IKST-CU PRISM 콘테스트 최종평가 및 시상식

KIST 한-인도협력센터는 Christ University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분야 인재발굴 및 양성을 위한 공동 연구제안서 콘테스트(PRISM, Primal Research Ideas In Science and Management)를 개최했다. Christ University는 인도 벵갈루루 소재 종합대학으로 지난 2016년 10월 5일 한-인도협력센터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콘테스트 일정이 연기되기도 하였지만 각 조직의 각고의 노력 끝에 최종평가와 시상식을 무사히 치르게 되었다. 주요 참석자이자 심사위원은 이승철 센터장, Iven Jose 교수, 연구특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 발표자료를 녹화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과 지원자 간의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최종 평가는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총 학생 부문 10명, 비학생 부문 2명의 수상자가 선정, “MODI를 위한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을 발표한 Solley Joseph가 학생 부문 1등, “딥러닝을 이용한 코끼리 침입 탐지 시스템”을 발표한 Harsha BM가 비학생 부문 1등에 선정되었고, “영상 처리를 이용한 질병 및 농약 예측”을 발표한 Rohit, Abhishek, Rohan, “LSTM 구축을 통한 인도 고전음악 구성”을 발표한 Ashviness가 각각 학생, 비학생 부문 2등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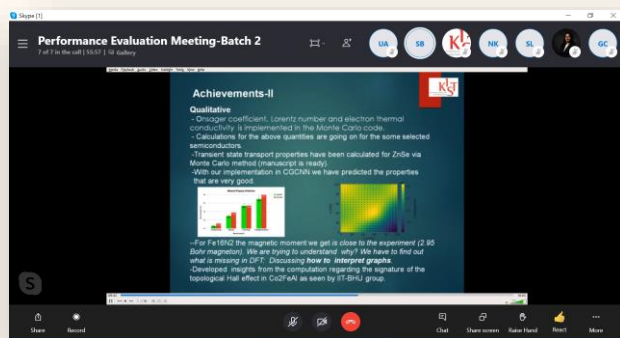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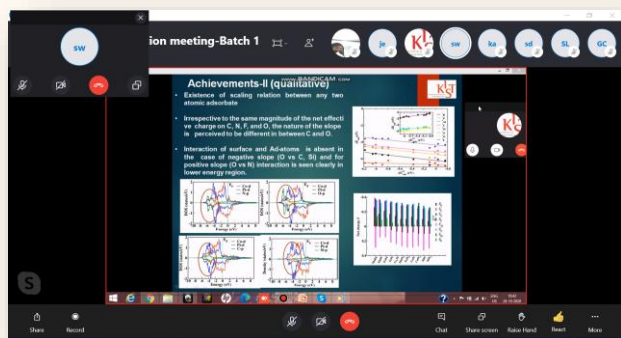
총 12개의 팀(학생 부문 10팀, 비학생부문 2팀)이 수상자의 영광의 누리며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승철 센터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된 시상식에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교류(K-POP, 국제합창단)영상도 함께 감상하였으며, 주요 참석자들의 축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과학기술 연구에서 얻은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숨은 인재와 아이디어에 대한 기회의 장이라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개최된 PRISM 콘테스트에서는 우수한 빅데이터 인력의 사전 확보 및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출된 연구 제안서는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2020년 연구원 연례성과 평가

KIST 한-인도협력센터는 협력연구사업 및 기술협력 거점 확보, 인도 우수학생/과학자 유치 지원 및 과학기술정보 수집/제공이라는 주요 임무를 띄고 설립된 기관이다. 이에 인도의 고급인력 및 기초기술력 등의 풍부한 자원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계산과학 및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R&D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센터에서는 센터장의 주도로 연구팀장 외 7명의 연구원이 1년간의 연구 과제를 내·외부적으로 협업하여 매년 연말에 연례성과 평가를 가진다. 올해는 계산과학 전문가용 SW개발, 계산과학 이론 및 방법론 개발, 빅데이터 활용 기법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목표한 성취율을 85%이상 달성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계획한 일정과 내년에 진행될 과제에 대해 마무리와 준비를 동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 센터 내 내부분쟁위원회(이하 ICC, Internal Complaint Committee) 구성

지난 10월 13일, Karnataka주의 여성위원회 관계자(KSWEC) 2명이 내부분쟁위원회(이하 ICC, Internal Complaint Committee)의 설립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인도 직장 여성 성희롱 방지/예방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조직에서는 직장여성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분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에 센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 이승철 센터장 지휘하에 ICC 설립을 진행하였다. ICC설립을 위해서는 법률과 핸드북을 상시 보관해야 하며, 발족을 위한 위원회(위원장 1명, 내부인사 2명, 외부위원 1명, 전체 4명 이상 위원 중 50%이상 여성)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에 지난 11월 11일, 외부위원 임명을 위해 Ms. Rashmi Tanksali (여성인권분야전문가, ICC 고문 임명)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규정에 근거하여 내부분쟁위원회의 의장으로는 Dr. Soumya Bhat(연구원), 구성원으로는 Dr. Satadeep B(연구팀장)-Mr. Mithun S(선임 행정원)-Ms. Sereum Jeong(행정원) 으로 구성 되어 출범하였다. 위원회는상시 접수되는 분쟁 내용에 따라, 최소 7일전에 논의를 거친 후에 열리게 될 것이다.



인도 과학기술 소식

1. C-DAC, 'PARAM Siddhi - AI' - 인도에서 가장 빠른 HPC-AI 슈퍼컴퓨터 될 것
 2. 모디 총리, AI 글로벌 정상회의 개막- "RAISE 2020"
 3. Airtel의 aatmanirbhar, 연구 개발 및 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5G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4. 5G 솔루션 테스트에 성공한 Reliance Jio와 Qualcomm, 1Gbps 이상의 속도 달성
 5. 케랄라주의 관광지에서 선보인 인도 최초의 태양열 소형 열차
 6. 인도 군부, 보안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SAI' 개발
-

1. C-DAC, PARAM Siddhi-AI - 인도에서가장빠른HPC-AI슈퍼컴퓨터될것

* C-DAC(Center for Advanced Computing)는 'PARAM Siddhi - AI' 가 인도 최대의 고성능 컴퓨팅 및 인공지능(HPC-AI) 기능을 탑재한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도는 글로벌 AI 슈퍼컴퓨팅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 Highlights

- AI 210 페타플롭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 NVIDIA DGX SuperPOD 기반이다.
- Niti Aayog,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C-DAC의 National Supercomputing Mission (NSM) 을 따라 설계 및 구축된다.
- NVIDIA 차세대 기술인 C-DAC 소프트웨어 스택 및 클라우드 플랫폼이 사용된다.

➤ Significance

- 이공계 분야의 연구 및 혁신을 통해 에코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한다.
- AI 전문기술 확대와 C-DAC의 AI & Language Computing Mission Mode Program의 활성화로 의료, 교육, 전기, 사이버 보안, 우주개발, 자동차, 농업 분야에서 실험 및 성과를 촉진시킨다.
- 학계, 스타트업 지원 센터, 산업부, 중소기업지원부와의 결속력을 다진다.

➤ Super Computers of India

- 인도의 첫 슈퍼컴퓨터는 C-DAC의 National Supercomputing Mission(NSM)에 의해 탄생된 "Param Shivay" 이다.
- IIT-Kharagpur는 National Supercomputing Mission에 의하여 슈퍼컴퓨팅시설을설립한최초의연구소이다.
-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차트에 이름을 올린 인도의 슈퍼 컴퓨터들은 아래와 같다.

PARAM Siddhi-AI India's fastest HPC-AI Supercomputer

हिंदी में

#UPSC #IAS

출처 - TOPPRS IQ



1. Pratyush : 글로벌 차트 39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인도의 기상연구소에서 활용중이다.
2. Mihir :글로벌 차트 66위에 진입 해 있으며, 인도의 중앙기상청에서 활용 중이다.
3. InC1 : 글로벌 차트 206위에 이름을 올렸다.
4. SERC : 인도 과학 연구소의 슈퍼컴퓨터 교육 연구 센터에서 글로벌 차트 327위를 차지 한 컴퓨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 중이다.
5. iDataPlex : 글로벌 차트 496위에 진입해 있다.

➤ Fastest super computer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415 페타플롭을 자랑하는 일본의 "Fugaku"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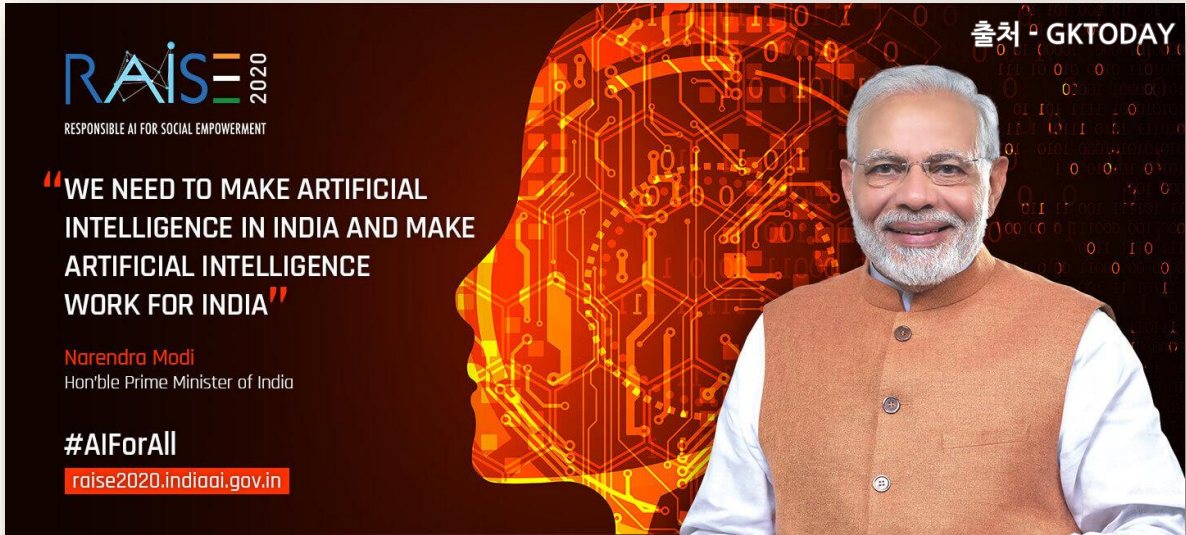
➤ National Supercomputing Mission

- 이 미션은 C-DAC가 전 인도 국가연구개발기관의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70개 이상의 고성능 컴퓨팅 기능이 탑재된 방대한 슈퍼컴퓨팅 그리드를 전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2. 모디 총리, AI 글로벌 정상회의 개막- "RAISE 2020"

* 전자정보기술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10월 5일 인공지능(AI) RAISE 2020-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AI를 주제로 글로벌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AI) 관련 글로벌 화상 정상회담, RAISE 2020'



➤ Highlights

- 이 정상회담은 2020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다.
- 전자정보기술부(MeitY)와 NITI Aayog에 의해 주최되었다.
- 개막식에는 전자정보기술부·통신부·법무부 장관과 저명한 글로벌 AI 전문가 Raj Reddy 교수, IBM과 Reliance의 Arvind Krishna와 Mukesh Ambani이 참석하였다.
- Raj Reddy 교수도 '20년 10월 6일에 언어장벽을 극복하는 음성인식 AI 개발에 대한 세션을 열었다.
- 이 세션에는 Infosys의 (前)CFO인 Mohandas Pai, Brad Smith의 사장 겸 법률책임자, Microsoft Global 등이 참여하였다.

➤ RAISE 2020

인공지능(AI) RAISE 2020-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AI를 주제로 한 가상 화상정상회의다.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AI'를 주제로 한 RAISE 2020에서는 보건, 교육, 사회(계층 이동),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무한한 잠재력에 이바지하는 지도자, 정책가, 혁신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RAISE 2020은 10억 명 이상의 인도인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모든 시민을 포용한다는 의미의 포용적 AI (Inclusive AI)의 구축에 대하여 전문적인 세션을 가질 예정이다. 세션에서는 Microsoft의 최고 관리자인 Jenny Lay Flurrie가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혔으며, UN 여성기구 부국장과 Isan 사무총장의 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는 Anita Bhatia 역시 이번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였고, 전 세계 학계, 연구업계, 정부 대표인사 등 이해관계자 15,000명 이상이 RAISE 2020에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다.

3. Airtel의 aatmanirbhar, 연구 개발 및 기업과의 제휴를 통하여 5G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aatmanirbhar : self-reliant India = 자립인도



* Airtel은 인도에서 자체 연구 개발(R&D) 팀과 국내 및 미국·일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5G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타 장비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지적재산권(IP)을 등록하여 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 고위 임원은 ET에 Airtel이 5G, 가정용 브로드밴드, 사물인터넷(IoT) 등 인도 내 와이어라인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미국의 Flex, 인도의 Tejas Networks 등과 같은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기술적인 능력을 끌어올려 줄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인도 시장에도 내놓을 수 있고 동시에 해외에도 수출이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Airtel에 있지만 다른 통신사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 분석가들은 국내 5G 및 텔레콤 시장의 개발과 활성화는 Airtel이 지금까지 자사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해 추가적인 금액을 부과하여 공급했던 기존의 벤더들에게서 벗어나 보다 자체적인 공급망 관리를 가능케 할 것이며 또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앞서 언급했던 고위 임원에 따르면 Airtel은 5G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파트너들과 현재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

4. 5G 솔루션 테스트에 성공한 Reliance Jio와 Qualcomm, 1Gbps 이상의 속도 달성

* Qualcomm Technologies와 Jio Platforms Limited (Jio)는 가상화된 무선 접속망 (RAN) 기능을 탑재하여 상호운용 가능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구성된 5G를 개발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음을 밝혔다. 양사는 또 Qualcomm 5G RAN 플랫폼을 활용한 Jio 5G NR 솔루션에 대해 1Gbps 이상의 기록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Jio의 5G 시장 입성이 타당함을 뒷받침하고, Jio와 인도가 차세대 무선기술 제품 생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인도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을 앞당기기 위함임을 양사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 5G 기술로 사용자들은 5G 지원 스마트폰에서 기업용 노트북, AR/VR 제품, IOT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높은 데이터 전송률, 통신 지연 시간 단축 그리고 전보다 향상된 디지털 경험 등과 같은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iance Jio Infocomm의 대표 Mathew Oommen은 "Qualcomm Technologies와 Jio Platforms의 기술이 결합 되어 이루어질 RAN 솔루션은 5G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자립인도' 정책의 실현을 돕는데 이상적인 조합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Qualcomm Technologies의 부사장이자 총괄 매니저인 Durga Malladi는 최근 Qualcomm 5G RAN Platforms에 대해 1 Gbps 이상의 기록을 달성했음을 알렸으며, 유동적이고 확장 가능한 5G RAN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Reliance Jio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5. 케랄라주의 관광지에서 선보인 인도 최초의 태양열 소형 열차

* 인도 최초의 태양열 소형 열차가 케랄라주 수석장관인 Pinarayi Vijayan 의 지휘 아래 케랄라의 한 관광지, 벨리에서 개통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될 이 열차는 케랄라주의 벨리를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발돋움 시키기 위한 ₹60 crore 상당의 프로젝트 중 일부였다. Vijayan 은 또 벨리 호수와 아라비안해가 만나는 케랄라주의 외곽에 위치한 친환경 관광지에 수영장과 도심 속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터널, 역, 매표소 등 모든 철도 시스템의 기능이 완비되어 있으며, 열차는 한 번에 45명 정도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Vijayan 장관은 "2.5 km를 거리를 오가는 이 친환경 태양에너지 소형 열차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저희는 ₹10crore 상당의 금액을 투자한 덕분에 ‘인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 수 있었습니다.”라고 온라인 연설에서 설명했다. 빈티지 증기 기관차를 본떠 설계된 이 열차의 인공 증기가 보는 이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기차역 역시 과거의 스타일을 재현해 세워졌다.



출처 - HT Tech

6. 인도 군부, 보안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SAI' 개발

* 인도 군부는 2020년 10월 29일 보안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통칭 '인터넷용 보안 애플리케이션(SAI)'을 출시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모디 총리의 '자립인도' 정책에 따라 개발되었다.

➤ SAI(인터넷용 보안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WhatsApp, Telegram과 유사하다. 이 앱은 종단 간 암호화된 전화·문자 및 화상 통신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SAI는 CERT(컴퓨터 긴급 대응팀)에 소속된 감사관과 군부 내 사이버 부서에 의해 개발되었다. SAI는 군부대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며 이는 인도 군인들 간의 안전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것이다.



출처 - Vajjramias

➤ 배경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20년 7월 4일 자립인도 정책 중 하나인 애플리케이션 혁신 챌린지를 시작하였다. 기술자와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세계적인 수준의 'Made in India' 앱을 만들었다. 챌린지는 기존의 앱 홍보와 신규 앱 개발 등으로 나누어 2개의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이 챌린지의 주요 목적은 현재 인도에서 통용되고 있는 앱들에 더 나은 가시성과 명확성을 주어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출처 - Daillyhunt

➤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

인도 군부는 상용화된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보안을 침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Truecaller, Facebook, Instagram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및 국가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고 있었다. 이전에도 인도 군부는 이미 89개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했던 이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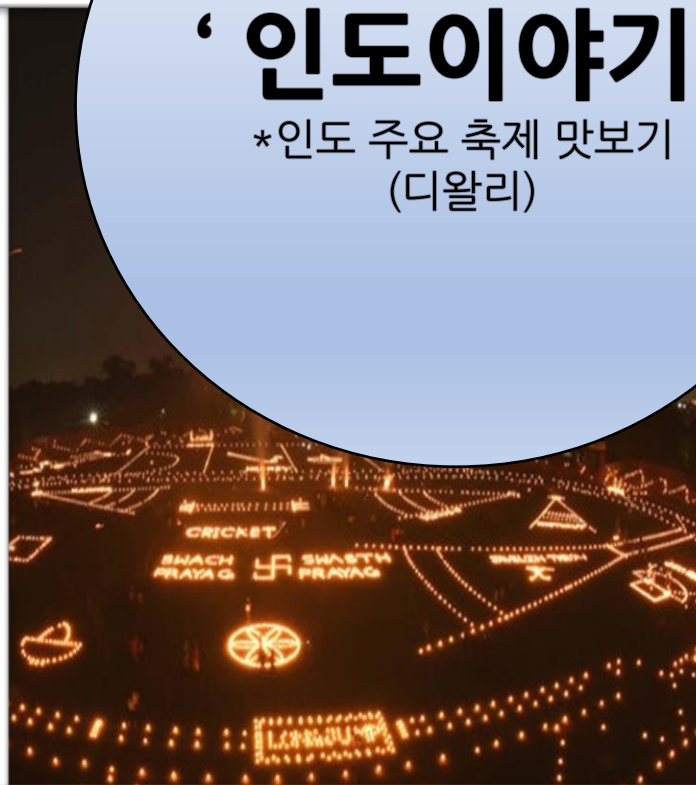
➤ 애플리케이션 개발

SAI는 Shankar 대령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앱은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제공하며, 특히 인프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고 주둔지를 관리할 수도 있다. 현재는 군부지 및 인프라 개발·계획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뉴얼 대로 진행되어 과거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뿐더러 효율성도 훨씬 좋다. SAI는 군부 내 사이버 부서와 컴퓨터 긴급 대응팀에 의하여 검열되었다.



‘ 인도이야기

*인도 주요 축제 맛보기
(디왈리)



❖ 힌두 달력 여덟 번째 달(Kārtika, 카르티카) 초승달이 뜨는 날을 중심으로 닷새 동안 집과 사원 등에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의 신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전통 축제

- ▶ 외국어 표기 - दिवाली(힌디어)
- ▶ 분야 - 민속 > 종교
- ▶ 지역 - 아시아 > 인도
- ▶ 개최시기 - 힌두 달력 여덟 번째 달 카르티카(Kārtika)의 초승달이 뜨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틀 전과 그 이틀 후까지 5일간(그레고리력으로는 10~11월경)
- ▶ 개최장소 - 인도 전역과 인근 지역
- ▶ 연관 축제 - 네팔 티하르, 인도 두세라, 네팔 다사인
- ▶ 시작 연도 - 불명
- ▶ 주관 단체 - 민관 공동

1. 축제 정의

- 디왈리는 집집마다 수많은 작은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의 신들을 맞이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힌두교 전통 축제로, 힌두교의 부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 죽음과 파괴의 여신 칼리(Kali), 최고신 비슈누(Vishnu)의 여덟 번째 화신인 크리슈나(Krishna) 등을 숭배한다.
- 디왈리는 홀리(Holi), 두세라(Dussehra)와 더불어 흔히 힌두교 3대 축제로 손꼽힌다.
- 디왈리 축제는 힌두교 태음력 일곱 번째 달인 아슈비나(Āśvina)의 마지막 이틀과 여덟 번째 달인 카르티카(Kārtika) 셋째 날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데, 그레고리력으로는 10~11월 경에 해당한다. 인도 전역과 인근 네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힌두교 신봉 지역은 물론 시크교(Sikhism)와 자이나교(Jainism)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로, 네팔에서는 티하르(Thihar)라고 부른다.
- 인도 전역에서 펼쳐지는 디왈리 축제는 각 지역별로 숭배하는 신이 다르거나 행하는 의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축제 기간에 작은 등불, 촛불, 향을 피워 집과 마을을 환히 밝히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디왈리는 흔히 ‘빛의 축제’로 알려져 있다.
- 힌두교에서 어둠은 무지, 악(惡)을, 빛은 지혜, 선(善)을 상징한다. 즉 불빛은 악에 대해 선이 늘 승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미를 지닌다. 또 불을 밝히는 것은 사악함, 욕망, 분노, 욕심, 고통,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고, 건강, 지혜, 평화, 용기, 부(富) 등을 가져다 줄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 디왈리, '빛의 축제' - 집집마다 작은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의 신들을 맞이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 힌두교인들은 디왈리를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한다. 디왈리를 맞이해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옷을 마련해 입고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신들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일들은 새로운 해를 신의 보호와 축복 아래 시작하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 농촌 지역에서 디왈리는 추수 감사 축제의 의미를 지니는데, 축제가 시작되는 시기는 가을 추수가 끝난 때로 인도 서부 지역에서는 갓 수확한 쌀로 만든 요리 포하(Poha)를 준비한다.

2. 축제 유래

- 디왈리는 ‘빛의 행렬’, ‘빛줄기’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디파발리’(dīpāvalī)에서 유래했다. 디왈리 축제는 아주 오래 전에 시작된 전통 축제인 만큼 축제의 유래에도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나, 관련 설화와 전설 등은 공통적으로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말한다.
- 가장 유명한 것은 라마(Rāma) 왕자 이야기다. 힌두교 3대 신에 속하는비슈누(Vishnu)의 화신이자 인도의 옛 왕국 아요디아(Ayodhya)의 왕자인 라마가 14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아내를 납치한 랑카(Lanka)의 사악한 왕 라바나(Ravana)를 물리쳤는데, 이 승리에 기뻐한 사람들이 라바나로 상징되는 어둠이 물러나고 라마 왕자를 뜻하는 빛이 온 것을 축하하며 등불을 피운 데서 축제가 유래했다고 한다.
- 또 다른 이야기로는 힌두력 카르티카 달에 나라카수라(Narakasura)라는 마왕이 현재의 마투라(मथुरा, Mathura) 지역 브린다반(वृन्दावन, Vrindavan)의 처녀들을 모두 납치했는데, 이에 분노한 크리슈나(Krishna) 신이 나라카수라를 죽이고 처녀들을 구출하자 마투라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크리슈나 신을 찬양한 데서 축제가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 디왈리 축제는 지루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무렵에 열린다. 이 무렵 인도인들은 우기 중에 더러워진 집 안을 청소하고 건조시키면서 해충을 없앤다. 이때 부와 지혜의 상징인 락슈미 여신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축복을 내려주며, 여신이 어둡고 더러운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여신을 맞이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여신이 집에 잘 찾아오도록 집 안팎 구석구석에 등불을 밝힌다고 한다.



☞ 디왈리, '빛의 축제' - 디왈리 축제에서 경배하는 대상 중 하나인 부와 지혜의 상징, 락슈미 여신은 가장 깨끗한 집에 먼저 들른다고 알려져 있다. 힌두교인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등불을 밝혀 여신을 맞이한다.

3. 축제 특징



☞ 디왈리, '빛의 축제' - 디왈리 축제 기간에는 각 가정은 물론 사원, 공공 건물 등에 등불, 촛불, 향을 피워 환하게 밝힌다. 힌두교에서 어둠은 무지와 악을, 빛은 지혜와 선을 상징한다.

- 디왈리 축제에서 경배하는 대상은 지역과 종교마다 다르다. 서부 벵골(Bengal) 지역에서는 시바 신의 아내 칼리(Kali) 여신을 기린다. 두르가(Durga) 여신의 첫 번째 화신인 칼리는 무시무시한 얼굴에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신으로, 칼을 들고 해골을 쥔 목걸이를 차고 있는 모습으로 주로 표현된다. 칼리 여신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어머니 여신의 이미지로, 칼리 여신을 기리는 의식인 칼리 푸자(Kali Puja)에서는 가뭄이나 전쟁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행복, 부, 명예를 기원한다.
- 북부 인도에서는 락슈미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 락슈미 푸자(Lakshmi-Puja)를 행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화환을 걸어주며 티카를 찍어 장수를 기원한다. 가족, 친지들끼리는 달콤한 음식, 말린 과일, 은화 등을 선물로 주고 받는다. 특히 축제 기간 북부 인도의 거리 곳곳에는 임시 무대가 마련돼 서사시 라마야나(Ramayana)를 주제로 하는 전통 연극 람릴라(Ramlila)가 공연된다.
- 남부 인도에서는 크리슈나 여신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은 나라카수라를 혼내주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것을 기념한다. 디왈리 축제날 이른 아침, 가족의 제일 연장자가 모든 가족의 머리에 기름(sesame oil)을 발라주면 가장 어린 사람부터 깨끗이 목욕하며 기름을 씻어낸 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저녁에는 등불을 밝히고 불꽃과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는 나라카수라를 물리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 한편 힌두교(브라만교)에서 파생한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에서도 디왈리 축제를 지낸다. 인도의 불교도는 디왈리 기간 중에 아소카왕(Ashoka the Great)의 불교 개종을 기념하며, 자이나 교도는 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Mahāvīra)의 열반을 기념한다. 시크교도들은 디왈리 축제를 여섯 번째 구루 하고빈드 지(Hargobind Ji)의 귀환을 축하하는 행사로 여기며, 신자들은 이를 기념하고자 황금 사원이라 불리는 하르만디르 사히브(Harmandhir Sahib)로 가는 길에 불을 밝힌다.

4. 축제 주요행사

- ❖ 현재 디왈리 축제는 인도를 비롯해 힌두교도가 사는 인접 국가인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지낸다. 그리고 인도인 이민자가 많은 모리셔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리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피지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디왈리 축제 기간에 관공서, 은행은 문을 닫고 상업 시설은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축제 기간 동안 대중교통이 운행을 멈출 만큼 디왈리는 인도 전 국민에게 중요한 축제다.
- ❖ 디왈리 축제는 닷새 동안 진행되는데, 각 날마다 이름이 있으며 각기 다른 행사가 열린다. 또한 지역마다 축제일의 이름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때로는 기원이 다른 여러 행사가 중복되기도 한다.

1) 단테라스(Dhanteras)

- 디왈리 축제의 첫날인 단테라스는 ‘단트라요다시’(Dhanatrayodashi)나 ‘단반타리 트라요다시’(Dhanvantari Trayodashi)라고도 불리는데, ‘단’(Dhan)은 ‘부유함’을, ‘테라스’(Teras)는 힌두 달력의 ‘13일’을 의미한다. 이날은 아슈윈 달(그레고리력 9~10월)의 크리슈나 팍샤(Krishna paksha), 즉 달이 이지러져 어두운 열세 번째 태음일로(한 달에는 두 번에 단테라스가 있는데,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13일째 되는 날은 달이 차오르는 밝은 열세 번째 날이라는 의미로 ‘슈클라 팍샤’(Shukla Paksha)라고 하고, 보름날부터 시작해서 13일째 되는 날, 즉 28일은 달이 기우는 어두운 열세 번째 날이라는 의미로 ‘크리슈나 팍샤’라고 한다), 재물과 부의 여신인 락슈미에게 경배를 올리는 날이다.
- 사람들은 집이나 가게를 수리하거나 단장하고 락슈미 여신을 환영하기 위해 화려한 전통 문양의 바닥 장식 랑골리(Rangoli)를 집 안팎에 그려놓는다. 밤새 등불을 밝히며 집 안 곳곳에 쌀가루와 빨간 가루를 이용해 발자국을 남긴다.



☞ 랑골리 (Rangoli) - 디왈리 축제 기간에 여성들은 집 안팎에 화려한 전통 문양 랑골리를 그려서 바닥을 장식한다. 집을 방문하는 신들을 환영하는 의미를 지닌다.

4. 축제 주요행사

2) 초티 디왈리(Choti Diwali)

- 축제 둘째 날은 초티 디왈리 또는 나락 차투르다시(Narak Chaturdasi)라고 불린다. 초티 디왈리는 ‘작은 디왈리’라는 의미로, 이날 상대적으로 등을 덜 밝히고 폭죽도 덜 터뜨린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다. 나락 차투르다시는 나라카수라를 무찔렀다는 뜻이다.
- 마왕 나라카수라는 인드라(Indra) 신에게 패한 뒤 어머니 신 아디티(Aditi)의 반짝이는 귀걸이를 훔치고, 신과 성인들의 딸 1만 6천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러한 만행에 아디티의 친척이자 크리슈나의 아내인 사티아바마(Satyabhama)가 매우 분노해 크리슈나에게 단죄를 요구했고, 크리슈나는 밤을 꼬박 새운 전투 끝에 나라카수라를 죽이고 갇힌 여성들을 풀어주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크리슈나는 상징적으로 나라카수라의 피를 이마에 발랐다. 전투를 마치고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온 크리슈나를 본 그의 아내가 크리슈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이후 매년 이날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목욕을 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지역이 있다.
- 이날 아침에도 여성들은 현관이나 뜰을 화려한 전통 문양 랑골리로 장식하고, 쌀 반죽으로 발자국을 남긴다. 저녁에는 락슈미 여신, 라마 왕을 위한 의식을 행한다.

3) 디왈리(Diwali), 락슈미 푸자(Lakshmi-Puja)

- 셋째 날은 디왈리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락슈미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주가 되는 날이므로 ‘락슈미 푸자’ 또는 ‘빛의 축제’라는 의미의 ‘디왈리’라고 부른다. 이날은 ‘아마바샤’(Amavasya)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새로운 달이 뜨는 초하루를 말한다. 즉 디왈리 축제의 셋째 날은 힌두 달력의 여덟 번째 달 카르티카의 초하루다. 이 무렵 태양은 천칭자리를 지나가는데, 평형과 균형을 나타내는 천칭자리는 회계 정산과 마감의 의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락슈미 여신이 부와 재물을 관장한다고 여겨지게 됐다.



☞ 락슈미 푸자 (Lakshmi-Puja) - 락슈미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인 ‘락슈미 푸자’는 디왈리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은 후 정결한 마음으로 여신을 맞이한 후 부와 행복, 명예를 위해 기도를 올린다.

4. 축제 주요행사

- 인도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락슈미 पूजा는 디왈리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 사람들은 디왈리 기간이 되면 집 안 구석구석을 먼지 한 톨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이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락슈미 여신이 가장 깨끗한 집에 먼저 들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리와 몸에 기름을 발라 정결히 하는 목욕의식을 하고 새 옷을 입는다. 저녁이 되면 집 안팎에 놓아둔 등불에 불을 밝히고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락슈미 여신을 맞이한다. 등불들이 어두운 밤에 여신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거의 모든 집이 불을 밝히기 때문에 온 마을이 대낮처럼 환해진다.
-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고 폭죽을 터뜨리며 축제를 함께한다. 힌두교 고대 문학에도 폭죽과 불꽃놀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매우 역사가 깊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설화에 따르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폭죽 소리에 놀란 악한 기운이 멀리 도망가기를 바라는 것, 폭죽 소리가 우주 멀리까지 울려 퍼져 라마에게 닿기를 바라는 것, 또 지상의 인간들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신들에게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

☞ 디왈리 축제의 폭죽과 불꽃놀이 - 축제 기간에는 등불과 향을 피워 집과 마을 전체를 밝힐 뿐 아니라, 폭죽을 터뜨리고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이는 폭죽 소리에 놀란 악한 기운이 멀리 도망가기를 바라고 인간들의 즐거움을 신에게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



4) 파드와(Padwa)

- 디왈리 축제 넷째 날은 ‘카르틱 슈드 파드와’(Kartik Shuddh Padwa, ‘카르티카 달의 파드와’라는 의미로, 파드와는 초하루인 아마바샤 후의 첫날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며, 보통 파드와 또는 파다바(Padava)라고 부른다. 이날은 비슈누 신이 마왕 발리(Bali)를 저승으로 보내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날이다.
-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이날 고바르단 पूजा(Govardhan Puja)를 행하는데, 고바르단은 마투라 근처 브라지에 있는 작은 언덕을 뜻한다. 축제 기간 중 편자브, 하리아나, 우타르 프라데시, 비하르 사람들은 쇠뿔으로 작은 둔덕을 만들어 꽃으로 치장하고 경배한다. 이 의식은 크리슈나 신이 고바르단 언덕을 들어 옮긴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4. 축제 주요행사

- 힌두교 경전 『비슈누 푸라나』(Vishnu-Purana)에 따르면, 고쿨(Gokul) 사람들은 몬순 계절이 끝날 무렵 비옥한 토지와 거기서 거뒀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인드라 신에게 경배를 드렸다. 그러던 중 어느 해에 어린 크리슈나가 기름진 땅은 고바르단 산이 내려준 것이므로 인드라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다. 이에 화가 난 인드라 신이 홍수를 일으켜 고쿨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고, 크리슈나는 고바르단 산을 들어올리고 우산처럼 받들어 고쿨 사람들을 모두 구해냈다고 한다.
- 이날은 ‘음식의 산’을 뜻하는 ‘안나쿠티’(Annakoot)라는 이름으로 경축되기도 한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크리슈나에게 바칠 56가지 또는 108가지 음식을 밤새 준비한다. 마투라나 나타와라의 사원에서는 신상(神像)을 우유로 목욕시키고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 같은 보석으로 장식된 성의를 입힌다. 기도와 전통 예식이 끝나면 신상 앞에 다양한 과자를 산 모양으로 쌓아 올린다.[네이버 지식백과] 디왈리 [Diwali] (세계의 축제 · 기념일 백과, 류정아, 오애리, 김홍희)

5) 바이 두지(Bhai Duj)

- 닷새 동안 이어지는 디왈리 축제의 마지막 날은 ‘바이 두지’라고 하는데, ‘바이’는 남자 형제를, ‘두지’는 초하루인 아마바샤 후의 둘째 날이라는 뜻이다. 이날은 남자 형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날로, 전통적으로 여자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을 위한 의식을 행하고, 남자 형제들은 답례로 여자 형제들에게 선물을 준다.



⇒ 바이 두지(Bhai Duj) - 닷새 동안 이어진 디왈리 축제의 마지막 날인 바이 두지는 남자 형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날이다. 전통적으로 여자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의 이마에 티카를 찍어주며 축원한다.

-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음의 신 야마(Yama)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누이의 집을 방문했고, 이에 누이 야미(Yami)가 매우 기뻐하며 야마의 이마에 성스러운 틸라크(tilak)를 붙이며 축원한 후 오누이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크리슈나 신이 나라카수라를 죽이고 여동생 수바드라(Subhadra)를 찾아갔는데, 수바드라가 불을 밝히고 이마에 틸라크를 붙이는 전통 방식으로 크리슈나 신을 환영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전설에서 비롯돼 바이 두지는 남매 사이의 정을 돈독히 다지는 의식을 행하는 날로 이어지고 있다.

내용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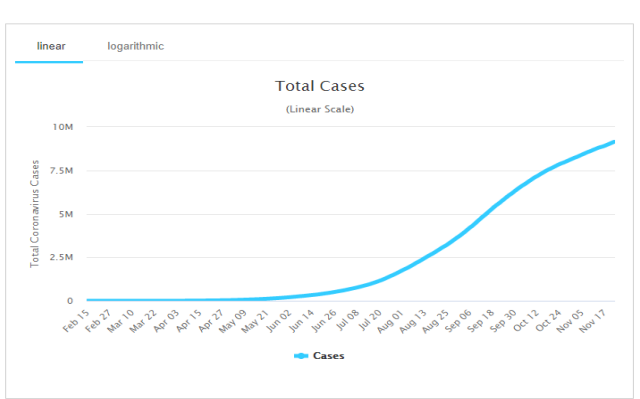
그 외 소식: 인도 코로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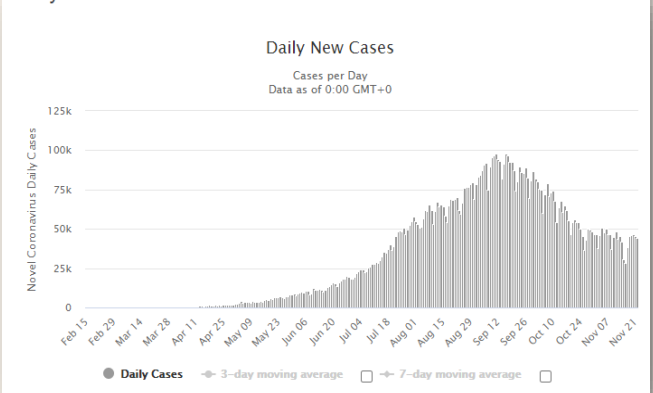
- 코로나19 일일(11월 30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는 누적 확진사례가 943만명을 초과, 현재 인도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에 따라 분화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엄중한 지역들에서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출범시켰다고 인도 정부가 밝혔다.
- 발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사회활동 봉쇄조치를 해제하는 동시에 검사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인도의학연구이사회에 따르면 19일까지 누적 추출 샘플은 1.3억 인분, 이중 19일 당일만도 추출 샘플이 108만 인분이었다.
- 지역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충격이 가장 가장 엄중했던 마하라슈트라 주(Maharashtra - 인도 서부에 위치한 주로 주도는 뭄바이)는 지난 9월 하순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기 시작, 7일간 단일 확진자가 2만여명으로부터 점차 평균 8000여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수도 뉴델리에서는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 지난 11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8000명을 초과하여 코로나19 폭발 이래의 최고기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지난 18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50만명을 초과했으며 19일까지 호흡기가 배치된 중증 감호실 사용율이 90%를 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17일 뉴델리시 정부에서는 집회인수 제한을 200명에서 50명으로 통제하기로 했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판정한 벌금은 500루피(1달러는 약 74루피)에서 2000루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선포했다.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전국에서 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인도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바신은 제3상 시험에 들어간 상황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1월 22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자국의 백신전략을 점검하며, 코로나 19백신이 최종 실용화하는 즉시 어떤 직군과 주민에 우선적으로 접종할지와 백신 출고 기술 플랫폼 등에 관해 논의했다.

출처 - Worldometers.info

Total Coronavirus Cases in India



Daily New Cases in India



그 외 소식 : 인도 코로나19 현황

- 카르나타카 주에서는 누적 확진자 884,897명의 Covid19 양성환자가 확인 되었으며, 여기에는 11,797명의 사망자와 849,821명의 퇴원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부는 공지를 통해 밝혔다. (11.30 기준)
- 입원 환자 23,279명 중 20,420명이 지정병원에 격리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반면 494명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I)이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카르나타카주 주도인 벵갈루루에서는 최근 새로운 확진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사례는 11월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며, 10월 31일 3만 4459건에서 11월 20일 1만 7663건으로 줄었다.
- 총 테스트 양성률도 10월 같은 기간 9.42%에서 11월 해당기간 2.34%로 떨어졌다. 회복률은 10월 11일 75.06%에서 11월 20일 93.99%치솟았다.
- 보건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벵갈루루가 사슬을 끊는 데 근접했지만 델리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